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LEEPING EMBERS OF AN ORDINARY MIND

가제 : 잔잔한 마음속의 불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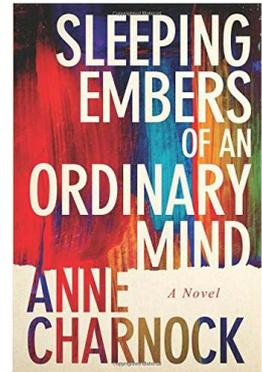
저자 : Anne Charnock

출판사: 47North

발행일: 2015년 12월 1일

분량 : 244 페이지

장르 : 소설(미스터리)



- * ‘필립 K. 딕 어워드 / 키쉬스 골든 텐타클 어워드 후보작가의 신작
- * 「가디언(Guardian)」 선정 ‘2015년 최고의 SF 판타지 도서’ 목록에 포함된 역사, 미스터리 소설
- * 너무나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사는 세 여성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감춰진 비밀과 사연

이탈리아, 중국, 영국, 각기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간 세 명의 여성이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대변하는 이 여성들이 예술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묘하게 한데 엮이는 특별한 소설이 등장했다. 「가디언(Guardian)」이 선정한 ‘2015년 최고의 SF 판타지 도서’ 중 한 권으로 선정된 이 소설은 15세기와 2015년, 2115년을 넘나들며 확연히 다른 삶이지만 그 속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 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대를 불문하고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창의적인 재능의 무게, 역사라는 묵직한 주제를 한꺼번에 담아낸 이야기는 미스터리와 역사 소설의 요소도 두루 갖추고 있다.

1469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거장으로 인정 받는 화가 파올로 우첼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사랑하는 딸 안토니아가 이제 열두 살이 되었는데, 자신의 피를 그대로 이어 받아 남다른 예술적인 감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시대였고, 만약 안토니아가 평범한 다른 여성들처럼 결혼을 하고 남편을 보필하며 살아간다면 그 특별한 재능은 평생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여자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수녀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 딸아이가 수녀원에서 지내기로 결심만 해준다면 아버지인 자신이 경제적인 뒷받침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 없이 특별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대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느낄 수 있을 소소한 삶의 행복은 포기해야 한다. 파올로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안토니아의 재능을 그냥 썩히기 아깝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수녀원에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수녀가 된 안토니아는 자리를 잡자마자 엄마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한 점의 작품이 이후 수백년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긴 세월이 흘러 2015년, 또 다른 부녀도 힘든 결단을 내린다. 돈 많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명작을 복제하

는 화가로 일하는 아버지와 그의 열세 살 짜리 딸 토니가 그 주인공이다. 자동차 사고로 토니의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부녀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근근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러던 중 중국에 있는 단골 고객이 토니의 아빠에게 새로운 작품을 의뢰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고, 부녀는 깊은 상실감도 달랠 겸 과감히 살던 곳을 떠나 당분간 상하이에서 지내기로 결심한다. 중국의 큰 사업가인 의뢰인은 토니의 아빠에게 이탈리아 화가 파올로 우첼로의 그림을 복제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토니 역시 아빠처럼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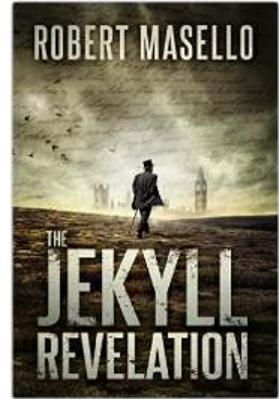
그로부터 다시 100년이 흐른 2115년, 예술 사학자인 토니아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막 취득했다. 여동생과 여자 조카까지, 토니아의 집에는 모두 여자들만 살고 있다.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은 더 이상 남자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고, 인공수정이 예전처럼 힘들거나 복잡하지도 않았다. 여성들이 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일이 22세기 토니아가 살아가는 영국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이다. 토니아는 어느 특별한 단체의 회원이기도 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았던 옛날에 여류 화가들이 남긴 작품이 역사 속에 묻혀버리거나 진가를 인정 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서 되살리는 것이 단체가 하는 일이었다. 이탈리아 미술을 전공한 토니아는 여성이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없었던 시대에 특히 관심이 많았고, 이번에 파올로 우첼로의 딸, 안토니아 우첼로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복잡한 사연과 이상한 소문이 늘 따라다니는 안토니아의 그림을 파헤치던 토니아는 뜻밖의 비밀을 발견한다.

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 여성의 삶을 번갈아 가며 따라가는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냥 묻혀 있었으면 좋았을 수수께끼의 영킨 실타래도 함께 풀리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앤 차녹(Anne Charnock)은 해외 특파원으로 세계 곳곳을 돌며 기자 생활을 하다가 소설가로 전향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환경학을 공부하고 맨체스터 예술학교에서 미술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데뷔 소설 『A Calculated Life』는 2013년 ‘필립 K. 디크 어워드(Philip K. Dick Award)’와 영리하고 진보적인 데뷔 소설에 수여되는 ‘키쉬스 골든 텐타클 어워드(Kitschies Golden Tentacle Award)’ 결선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JEKYLL REVELATION
가제 : 지킬의 정체
저자 : Robert Masello
출판사: 47North
발행일: 2016년 11월 8일
분량 : 492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로버트 마셀로(Robert Masello)상 수상작가의 신작**

***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탄생에 얽힌 믿기 힘든 사연**

*** 소설 주인공 지킬 박사와 실제 살인마 잭 더 리퍼를 연계시킨 베스트셀러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

*** 스티븐슨이 남긴 일기장과 소설에 등장했던 신비의 약물, 현대 미국에서 되살아난 악마 같은 존재**

1880년대,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두 인물이 등장했다. 한 사람은 실제 인물, 나머지 한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었다.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 신비한 약을 먹고 최악의 범죄자로 변모하는 지킬 박사가 독자들의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일으켰다면, 화이트채플에서 매춘부를 잔혹하게 죽인 살인마 일명 '잭 더 리퍼'는 끝내 잡히지 않은 실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꼽히는 이 잭 더 리퍼가 지킬 박사와 관련이 있다면? 베스트셀러 『THE EINSTEIN PROPHECY(아인슈타인의 예언)』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는 섬뜩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로 그 전제를 토대로 새로운 소설을 완성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상한 물건들과 작가 스티븐슨이 남긴 일기장을 통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악한 영혼이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오싹한 이야기가 현대와 19세기 런던을 오가며 펼쳐진다.

환경 과학자인 라파엘은 캘리포니아 토파가 지역에서 협곡 사이를 오가며 매일 정찰을 돌던 중이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인 만큼, 늘 쌍안경을 목에 걸고 여우부터 라쿤, 사슴, 갈색 곰이며 방울뱀, 코요테까지 수천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집으로 여기고 사는 땅을 자신이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다. 사냥 허가를 받고 허용된 동물을 잡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들 틈에 몰래 끼어서 보존해야 할 동물들을 덫으로 잡아들이는 파렴치한 사냥꾼들도 제법 많아 라파엘은 하루도 감시를 게을리 할 수가 없었다. 심하게 낡은 이상한 가방 하나를 발견한 그 날도, 라파엘은 어느 때처럼 호숫가 주변을 돌며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흔적과 불법 사냥꾼들의 자취를 확인하고 있었다. 숨을 돌리느라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보던 중 멀리서 녹색 트럭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굳이 이 외진 곳까지 저런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했다. 쌍안경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분명 트럭이었다. 라파엘은 의아해하며 일단 수거할 작정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야생동물 서식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가방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직접 쓴 일기였다. 뜻밖의 발견에 당황한 것도 잠시, 그 일기에는 스티븐슨이 남긴 명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탄생에 얽힌 믿기 힘든 사연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소설이 탄생하고 2년 뒤, 런던을 공포로 휩쓴 살인마 잭 더 리퍼의 정체에 관한 끔찍한 비밀도 폭로되어 있었다.

1894년 11월, 스티븐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살던 곳에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도착할 수 있는 사모아 섬으로 떠나,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머나먼 곳에서 이제 겨우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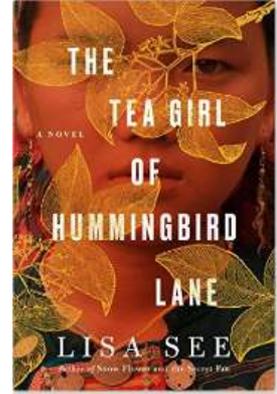
화를 찾은 것 같다는 안도감은 다 착각이었음이 이내 드러났다. 스티븐슨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유일하게 속내를 다 털어놓던 지인 헨리에게, 사모아 섬에서 되살아난 끔찍한 악마에 대해 전한다. 화이트채플에서 다 끝내버린 줄 알았던 존재, 스티븐슨이 자신의 두 눈으로 어두운 복도 한 켠에 죽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그 존재가 사모아까지 따라온 것이다. 어느 밤, 잠자리에 든 스티븐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원주민 사내아이가 갑자기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서 그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 겁에 질린 아이를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그는 총으로 무장하고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고, 부둣가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20대 여성의 시체 한 구를 발견한다. 물가에 떠 있는 시신과 모래사장에 선명하게 남은 남자 신발의 발자국. 신발을 신지 않는 사모아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다녀갔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총을 장전하고 그 발자국을 쫓아간 스티븐슨은, 바닷가 작은 오두막 안에서 이제 사라진 줄 알았던,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존재의 흔적을 발견한다.

한편, 라파엘이 발견한 트렁크의 내용물은 스티븐슨의 일기장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본 사람이 라파엘 혼자인 것도 아니었다. 하이드 씨를 지킬 박사로 변신시킨 그 이상한 약물,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이 남아 있는 약병이 그 트렁크 안에 일기장과 함께 남아 있다가 라파엘보다 먼저 발견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문제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끝내 잡히지 않은 1880년대 영국의 연쇄 살인마와 작가의 상상 속에만 존재할 줄 알았던 지킬 박사의 실체, 그리고 길고 먼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되살아난 악마 같은 존재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로버트 마셀로(Robert Masello)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TV 방송작가, 소설과 비소설 저서를 여러 권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The Einstein Prophecy』, 『The Romanov Cross』, 『The Medusa Amulet』 등 다양한 소설이 열 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대학에서도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작가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의 오랜 구성원이기도 하며, 컬럼비아 대학교의 저널리즘 석사 과정 등 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제목 : THE TEA GIRL OF HUMMINGBIRD LANE
가제 : 벌새 지저귀는 차밭의 소녀
저자 : Lisa See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2017년 3월 2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일반)



- * 2011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소개하는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과 운영, 차에 얽힌 사연들
- * 고산지대에 조금씩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아이를 떠나 보낸 엄마와 고향을 찾는 딸의 감동소설, 아주 뛰어난 감성적이고, 유익하며, 쾌활하고 인간미 넘치는 문체로 사로잡는다. - 「워싱턴 포스트」
- * 중국계 미국여성의 매력적인 자화상 - 「뉴욕 타임스」

중국 윈난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 마을에 '아카족'이 살고 있다. 중국 남부지역이 원래 이들의 전통적인 주거지였지만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 미얀마, 태국 등 다른 나라로 뿔뿔이 쫓겨나야 했던 비운의 소수민족이다. 영화로도 제작된 베스트셀러 『Snow Flower and the Secret Fan』(2005)에서 중국 후난성에 남은 소수민족 '야오족'을 소개했던 작가는 이번에 또 다른 소수민족을 새로운 소설의 주인공으로 택했다. 차밭을 가꾸며 지극히 보수적인 전통을 지키며 사는 집단 속에 살아온 소녀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떠나 보내고, 머나먼 미국 땅으로 간 딸은 전혀 다른 문화에 익숙한 아이로 자라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는 중국과 미국의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동떨어진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존재조차 거의 알지 못하는 첩첩 산중 오지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과 거센 변화의 압력 속에 서서히 변해가고 잃어가는 전통의 자취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조명한다.

1990년되기 훨씬 전, 열살 소녀 리안은 아카족 마을의 가난한 집 딸로 집안일을 거들며 살고 있었다. 마을에서 산파로 일하는 리안의 엄마는 높은 산속에 자리한 마을 전체 여자들 중에 지위가 가장 높았다. 아카족에서 가장 추앙 받는 대상은 '루마'라 불리는 족장님이다. 인간과 죽은 영혼들이 서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어주는 존재로 여겨지는 족장님은 마을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그 다음이 '니마'라 불리는 무당으로, 필요할 때면 최면에 걸린 것 같은 의식의 경계로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아프거나 기운이 빠지면 특별한 주문으로 치유하고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했다. 마을의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이 그 뒤를 이었고, 다음은 나이와 상관 없이 모든 남자 아이들이 차지했다.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꼬맹이 사내아이보다 서열이 밀리는 처지였다. 그래도 리안의 엄마는 여자 중에 지위가 으뜸이었는데, 산파인 엄마의 손에서 아카족의 모든 남자들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거기에 큰 몫을 했다. 엄마는 꿈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라 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하면서 식구들에게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물어보곤 했다. 모든 꿈은 다가올 일을 알려주고 우연을 예상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라는 것이 엄마의 지론이었다. 꿈 역시 서열에 따라 남자들이 꿈의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평소와 달리 엄마가 리안에게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그 날, 하필 리안은 아주 이상한 꿈을 꿨고 정말로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

기 시작했다.

리안은 지붕 위에 개가 올라가 있는 꿈을 꿔다. 꿈에 리안은 평소처럼 낮에 차 밑에 나가서 앞을 따고 어두워지자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지붕 위에 개가 서 있었다. 아카족에게 개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 중요한 의식에 제물로 바치는 동물, 사악한 영혼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 그리고 귀중한 식량이다. 리안의 꿈에 등장한 개는 다리와 꼬리를 깨끗하게 세우고 용맹한 자세로 서 있었는데, 아카족은 대대로 개가 그런 모습을 악령을 쫓아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개의 눈을 피해 사악한 영혼이 잠입하여 마을 어딘가를 누비다가 조만간 불쑥 나타난다는 의미로 여겼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리안은 꿈 내용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다행히 엄마는 속일 수 있었지만, 그 날부터 리안에게는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아카족에게는 낯설고 영락없이 무시무시한 괴물로만 보이는, 자동차라는 것을 타고 외지인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특별한 차 앞을 찾아 헤매던 중 외부세계와 단절된 아카족에게서 마침내 자신이 찾던 차를 발견했다면서 뿔 듯이 기뻐했다.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되는 마을에서 그와 말이 통하는 사람은 리안뿐이었고, 어쩔 수 없이 그와 다른 사람들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낯선 외지인의 방문 이후, 소수민족의 오랜 전통을 지켜오던 아카족에게 아주 미세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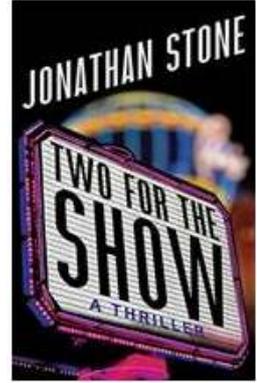
시간이 지나, 리안은 마을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 결혼도 하기 전에 덜컥 임신을 한 것이다.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아이를 낳은 리안은 말린 차 잎과 함께 아기를 담요에 싸서 멀리 입양을 보내고 만다.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된 리안의 딸은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자신의 출신에 대한 궁금증은 도저히 사그라지지 않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고향과 친부모에 대한 생각이 불쑥 끼어들곤 했다. 아카족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가는 리안 역시 오래 전 버린 딸을 내내 그리워하며 속을 태운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건 오직 차 잎 하나뿐. 머나먼 곳에서 각자 살아온 엄마와 딸은 대대로 가족의 운명을 뒤흔든 아카족의 차를 단서로, 서로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다.

엄마와 딸의 끊을 수 없는 관계와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인 차의 역사, 그리고 중국 소수민족이 겪어 온 안타까운 운명과 현실을 모두 녹여낸 소설은 아이를 입양 보낸 한 여자와 아이를 입양한 여자, 그리고 입양의 주인공이 된 소녀까지 세 여자가 처한 삶과 사연을 각각 세밀하게 들려준다.

<저자 소개>

리사 시(Lisa See)는 『Snow Flower and the Secret Fan』, 『Peony in Love』, 『Shanghai Girls』, 『China Dolls』, 『Dreams of Joy』 등 중국의 역사적인 소재를 가미한 소설로 여러 차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에 이름을 올렸다. 2001년 ‘중국계 미국여성협회’로부터 ‘올해의 여성’에 선정됐다.

제목 : TWO FOR THE SHOW
가제 : 두 능력자
저자 : Jonathan Stone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6년 5월 31일
분량 : 268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자와 그 놀라운 능력 뒤에 숨어 있는 천재 해커, 두 사람이 만드는 쇼
- * 영리한 속임수와 그것을 폭로하려는 자들, 화려한 명성 뒤에 감춰진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진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와 범죄 소식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요즘, 영악한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평범한 사람들을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속일 수 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린 흥미진진한 소설이 등장했다. 오직 사이버 공간에서만 ‘수사’를 벌이는 조사관 채드와 20년째 그의 단 하나뿐인 고객 사이에서 벌어진 은밀한 정보 거래, 둘의 수상쩍은 관계를 눈치챈 자들, 그리고 수면 위로 떠오를수록 충격적인 고객의 정체를 다룬 스릴러 소설이다.

일명 ‘어메이징 윌리스’로 불리는 아처 윌리스는 라스베가스 전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다. 윌리스가 등장하는 공연은 전회 매진이고, TV 프로그램 시청률도 내려갈 줄을 모른다. 그가 이처럼 뜨거운 인기를 누리게 된 데에는, 두 눈으로도 보고도 믿기 힘든 능력이 큰 몫을 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다. ‘멘탈리스트’ ‘독심술사’ 등 갖가지 별명으로 불리는 윌리스는 관중석을 꽉 채운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무작위로 선별하고,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릴 때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집에 살았고 지금 자녀는 몇 명인지 등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술술 읊어댄다. 지목된 관중은 마치 머릿속 기억장치를 도둑맞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고, 기겁하는 그 반응만 보아도 다른 관객들이며 그 공연을 지켜보는 TV 시청자들은 윌리스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윌리스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을까? 사실 윌리스의 이 유명한 쇼는 두 사람의 합작품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윌리스의 검색장치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 조사관 채드가 바로 쇼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컴퓨터로 원하는 정보를 찾는 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천재적인 능력의 소유자인 채드는 20년째 어메이징 윌리스를 위해서만 일해왔다. 다른 조사관들처럼 바람 피우는 배우자의 뒤를 몰래 쫓거나, 어느 날 사라진 실종자의 흔적을 찾느라 땀 흘리며 도시 곳곳을 휘젓고 다닐 필요 없이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 째딱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인데, 채드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윌리스의 공연 일정이 잡히면, 채드는 예매자 중에서 쇼의 주인공이 되어줄 인물을 골라 상대의 모든 신상정보를 찾아낸다. 어떤 일을 하고, 차는 어떤 걸 몰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떠했고, 유치원 선생님 이름은 무엇이었고,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무엇인지, 심지어 공연 전날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별로라고 느꼈는지도 다 알아낸다. 사이버 공간에 널린 정보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각종 소셜미디어며 웹 사이트, 정부기관이 보유한 기록 몇 가지만 뒤지고 해킹하면 이런 놀라운 정보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온다. 채드는 그 정보를 추려 윌리스에게 제공하고, 무엇이든 사진 찍듯 선명하게 기억하는 윌리스는 채드가 알려준 각종 정보를 달달 외워서 무대에 선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하여 주인공을 선택하고, 외워둔 정보로 모두를 놀라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찰떡궁합 두 파트너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무 문제없이 손발을 맞춰왔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난 것은 단 한두 번 뿐이지만, 채드는 꼬박꼬박 두 독한 급여가 입금되고 자신이 찾아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TV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만족했다. 그러나 ‘스튜워슨’이라는 성을 가진 부부가 등장하면서 이 평화로운 거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채드는 어느 때처럼 데이브 스튜워슨과 샌디 스튜워슨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발굴하여 윌리스에게 건넸는데, 공연장에 나타난 스튜워슨 부부는 그 정보에 담긴 인물이 아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 둘은 진짜 정체를 숨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있었다. 윌리스는 그 날 공연에서 실체가 폭로될 뻔한 위태로운 순간을 몇 번이나 넘겨야 했고, 쇼 이후에 채드는 수상한 자들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놀랍게도 그 가짜 스튜워슨 부부였다. 이들은 채드와 윌리스 사이에서 비밀리에 오간 거래를 다 알고 있고, 목표는 윌리스의 명성을 추락시키는 것이니 채드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 거절하면 지금까지 벌인 모든 일을 다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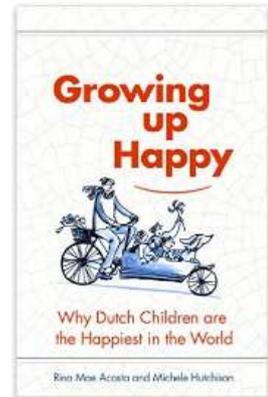
대체 왜 이들은 윌리스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인 걸까? 채드는 그 동안 온갖 사람들의 신상을 다 캐왔지만 정작 동업자인 윌리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다. ‘어메이징’한 독심술사로 명성을 알리기 전, 대체 윌리스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의혹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고, 납치와 신원 도용, 인질 협상, 절단되어 사라진 시체까지, 윌리스의 과거에서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정보들이 가득하다. 이제 채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눈 뜬 장님처럼 살아온 긴 시간을 지나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한 주인공이 자기 자신과 아무 근거 없이 무턱대고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의 진실을 깨닫는 과정이 현실과 환각을 오가듯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박진감 있게 이어진다.

<저자 소개>

조나단 스톤(Jonathan Stone)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맨해튼의 한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 데뷔작으로 발표한 미스터리 스릴러 시리즈 『Julian Palmer』는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두 번째 소설 『The Cold Truth』도 「뉴욕 타임스」로부터 “빠가 으슬으슬할 정도로 오싷한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The Teller』, 『Moving Day』, 『The Heat of Lies』, 『Breakthrough』 등의 소설을 발표했다.

NON-FICTION

제목 : GROWING UP HAPPY
가제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네덜란드 육아법
저자 : Michele Hutchison & Rina Mae Acosta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7년 1월 1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자녀교육 (육아)



*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사는 곳, 네덜란드. 다른 나라 부모들과 사뭇 다른 그들만의 비결

얼마 전 뉴스에서 이 폭염 속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에도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아이들을 붙잡고, 행복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2013년, 유네스코가 경제 순위 상위 2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어린이가 느끼는 행복감이 가장 큰 나라는 네덜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16위, 미국은 26위로 경제적으로 훨씬 뒤떨어지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보다 겨우 몇 계단 앞서는 데 그쳤다. 네덜란드 아이들은 지켜보는 어른이 없어도 자전거를 타고 마음껏 집 주변을 달리고, 네덜란드 청소년들은 딱히 부모에게 반항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엄마들은 일하느라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는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아이가 아침식사로 버터 잔뜩 바른 빵에 초콜릿 가루를 뿌려 먹도록 내버려둬서? 열살 전에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지 않아서?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살아온 두 저자는 네덜란드인 남성과 결혼하고, 네덜란드로 이주해 살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 행복의 비결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직접 확인한 네덜란드의 독특한 양육 환경과 문화, 자신들이 익히 잘 알고 익숙한 고향의 문화와 너무나도 다른 특징들을 상세히 비교하여 무엇이 그곳 아이들을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건강하고 행복한 존재로 자라게 하는지 그 비밀을 이 책에 정리했다.

네덜란드는 유독 자유로운 나라로 명성이 높다. 섹스나 마약, 술과 같이 다른 국가들이 엄격히 규제하려고 애쓰는 요소도 저래도 되나, 싹을 정도로 그냥 풀어주는 과감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정의 행복을 중시하고, 자녀가 생기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아이를 자신이 낳았다는 이유로 소유물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한다.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이 자연히 따라오지는 않지만 행복하면 성공이 따라올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덜란드의 아이들은 놀이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모두 많은 자유를 누린다.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친숙하고, 무엇이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고 굳이 돌려 말하지 않는 네덜란드인 특유의 방식이 자리를 잡는다. 어른들의 관심을 얻으

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재미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두 저자는 네덜란드의 아이들이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아주 어릴 때부터 쌓아가면서 세상 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네덜란드 특유의 양육 방식과 함께 상세히 소개한다. 불안이 바탕이 되어 시시각각 아이의 안전을 염려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 따라가거나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할 까봐 전전긍긍하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네덜란드 부모들의 방식은 무엇이 진짜 행복한 아이로 만드는지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게 한다.

<목차>

머리말

1. 네덜란드에 대하여
2. 엄마들을 보살피다
3. 이 구역에서 가장 행복한 아기들
4. 학교 다니기 전에는 글 못 읽어도 좋아
5. 스트레스 없는 학교생활
6. 훈육 방식
7. 빗속에서 즐기는 자전거
8. 자유로운 어린 시절
9. 단순한 삶
10.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들

(이하 생략 - 총 13장과 결론으로 구성)

<저자 소개>

미셸 허치슨(Michele Hutchison)은 이스트앵글리아 대학, 리옹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각각 문학과 프랑스어, 철학을 공부하고 영국의 출판회사에서 에디터로 일하였고 암스테르담에서 프리랜서 편집자, 번역가로 살고 있다. 네덜란드 소설과 아동서 등을 번역했다.

리나 메이 아코스타(Rina Mae Acosta)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분자환경생물학을 공부하고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보건경제학을 공부했다. 네덜란드에서 프리랜서 작가 겸 블로거로 살고 있다.

제목 : SIMPLE THINKING

가제 : 단순한 생각: 인생과 일에서 복잡함을 제거하는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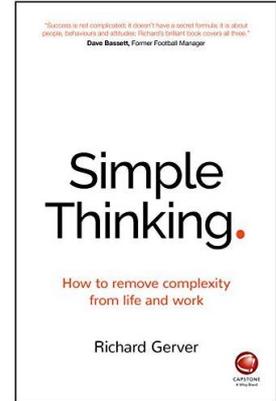
저자 : Richard Gerver

출판사: Capstone

발행일: 2016년 7월 29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영국 국가 교사 상(National Teaching Award)' 수상작가의 신작

* 무조건 복잡하게만 생각하고 어려운 해답만 찾으려는 습관을 버려라! 단순한 생각이 주는 행복

* 실패해도 금세 회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진실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법

인간은 원래 아주 단순하게 사는 존재로 태어난다. 본능에 충실하고, 그저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고 어느 정도 돌봄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자연의 기적 같은 섭리에 따라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불과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만 지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변 모든 것을 감각으로 인지해야 하고, 대부분은 엄청난 속도로 배우기 시작한다. 바디랭귀지부터 음성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미, 얼굴 표정, 소리, 눈으로 본 것, 코로 맡은 냄새를 배우고 나중에는 걷고 직접 말하는 법을 배운다. 복잡한 세상, 정신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틈을 주지 않고, 우리는 눈 앞에 문제가 닥치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태어났지만 점점 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과연 이 모든 복잡한 생각과 해결방식이 반드시 필요할까? 괜히 어렵게 말하는 습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말들, 핵심은 감추고 빙빙 돌려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현대인의 습관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강력한 능력, 즉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은 강연자인 저자는 세상을 다시 처음 태어났을 때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보다 담대한 원래의 자아가 가진 시각을 되찾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던 문제도 단순한 해답이 보인다.

20세기 초에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 몰아 닥친 후 '단순함'은 유행어처럼 돌기 시작했다. 새천년의 시작을 절망으로 몰고 간 그 엄청난 위기는 더 큰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서 잠시 숨을 쉬고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어린 아이들에게 성공이란 배고플 때 배불리 음식을 먹는 것, 찢찢한 기저귀를 산뜻한 새 것으로 누군가 바꿔주는 것,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거실의 장식장문을 용감하게 열어보거나 장난감 블록을 높이 쌓는 것이다. 옆집 친구가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사실이나, 친척 동생보다 자신이 노래를 못한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단순했던 성공의 정의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의미로 우리 의식 속에

자리하고, 새로 정의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자꾸만 채찍질한다. 그래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실상은? 몸과 마음은 병들고, 이게 과연 올바른 삶인가에 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결국 희망을 잃고, 그토록 원대했던 꿈과 열정도 모두 잃고 만다. 이제는 테이프를 거꾸로 되돌려서 성공을 다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의할 때가 되었다. 저자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단순하고 원초적인 인간 본연의 사고 방식을 일깨우면 뜻밖의 지혜가 찾아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자연스레 깨달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패해도 금세 회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진실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법, 누군가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내 생각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 다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 어린아이
2. 흥미?
3. 문제?
4. 초점을 정하라
5. 준비하라
6. 믿음
7. 말
8. 함께
9. 안전유리
10. 결말

<저자 소개>

리처드 거버(Richard Gerver)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영국 그란지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중시하는 아동 교육을 실현했다. 디즈니랜드처럼 신나는 학교로 만드는 데 노력해온 그는 가장 혁신적이고 다른 교육자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인물로 인정 받아 '국가 교사 상(National Teaching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목 : LITTLE WINS

가제 : 꼬마들에게 배우는 삶의 핵심

저자 : Paul Lindley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17년4월

분량 : 200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아이 같은 마음가짐과 생각에 담긴 잠재력과 가능성, 위축된 어른들이 잊고 살아온 삶의 핵심
- * 어릴 때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어른이 된 현대인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의 본성을 일깨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는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꼬마들을 아직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만 생각한다. 신체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발달 수준도 당연히 어른이 앞선다고 여긴다. 아이들은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성숙해지리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이 아이들의 시각을 십분 활용한 덕분에 영국 전체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유아 식품 업체를 운영하게 된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어린아이들의 창의성과 호기심, 결단력, 야망, 사교성은 소위 잘 나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충분히 부러워할 만큼 우수하다. 자기 침대 위로 기어 오르는 것, 엄마 아빠의 관심을 모으는 것,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그 누가 뭐래도 보고야 말겠다는 것, 아이들의 목표 또한 놀랍도록 단순하다. 이 모든 자질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와 거의 다르지 않다. 저자는 어른이 되면서 점차 희미해져 결국 대부분 잃고 마는 아이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되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성공과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어릴 때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어른이 된 현대인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의 본성을 일깨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빨간 거(The red one)! 내 불자동차처럼 빨간 거!” 저자가 2006년에 설립한 영유아 식품업체 ‘엘라스 키친(Ella’s Kitchen)’은 저자의 자녀 중 한 명인 패디가 외친 이 짧은 말에서 시작됐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저자는 네 명의 유아들로 구성된 시식 패널을 부엌 식탁에 앉혀놓고, 스무디 제품에 사용할 만한 과일을 선정하던 중이었다. “어떤 과일이 제일 좋아?”라는 질문에 패디는 주저 없이 딸기, 라즈베리, 사과 등 붉은 색 과일들을 모아 놓은 쪽을 가리키며 저 말을 외쳤고, 아이의 표현 그대로 ‘The Red One’이라 이름 붙인 엘라스 키친의 첫 번째 상품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제품이자 회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을 고수한 덕분에, 회사는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판매되며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선택과 경험이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어린아이들의 시선을 따르는 것, 그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잘 먹힐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어른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앞이 아닌 과거를 보며 성장하는 것,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원래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자질과 특징을 일깨우는 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어려운

기술만 익히려는 생각 대신 작은 것부터 새롭게 도전하고, 지나친 고민 대신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대화하는 방식도 보다 명료하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수많은 실패로 좌절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다. 우리가 맨 처음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며 웃는 법을 배울 때, 처음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법을 배울 때 지니고 있던 명랑함과 주변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는 호기심, 열정을 되살려 일어나 삶의 목표를 다시 정립하는 법을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1. 하향 성장

1부. 웃는 법을 배울 때

2. 자신감을 가져라

3. 창의적으로 해보자

2부. 걸음마를 배울 때

4. 일단 뛰어들어보자

5. 절대 포기하지 마라

3부. 말을 배울 때

6. 알아채는 법

7. 정직해야 한다

8. 감정을 알려라

4부. 놀이를 배울 때

9. 즐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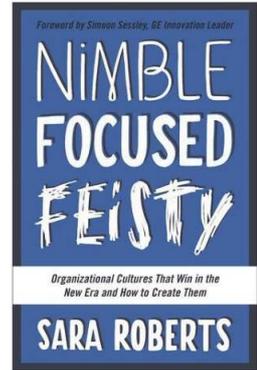
10.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

결론. 순수한 나로 돌아가는 길

<저자 소개>

폴 린들리(Paul Lindley)는 리딩 대학교에서 법학으로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어린이 TV 채널 니켈로디언에서 일하다가 2006년 영유아 식품업체 ‘엘라스 키친(Ella’s Kitchen)’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 2013년에는 사업을 미국 업체에 매각하고 대표이사직은 계속 역임하면서 어린이 욕실용품 업체 ‘패디스 배스룸(Paddy’s Bathroom)’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BBC, Sky, Fox, Bloomberg 등 다양한 방송 매체와 간행물에 출연하고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NIMBLE, FOCUSED, FEISTY
가제: 민첩하게, 중점적으로, 거침 없이
저자: Sara Roberts
출판사: BenBella Books
발행일: 2016년 8월 16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경영



- * 변화와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대, 성공을 위해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조직문화와 그 역할
- * '무엇'과 '어떻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다

조직문화가 기업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애플, 구글 등 성공한 기업의 상징이 된 유명한 업체들이 실제로 조직문화가 성장과 변화, 혁신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화를 그냥 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것쯤으로 여기는 회사들이 많다. 그러나 세계화와 기술 변화로 불확실성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이야말로 조직문화의 개선은 가장 먼저 손대야 할 요소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문화가 필요하다. 한창 잘 나가다가 하락세에 접어들어 허우적대는 수많은 대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이어온 저자는 시장의 우위를 놓치지 않고 무사히 생존한 기업들과 셋별처럼 나타나 빠르게 우위로 올라선 업체들의 공통분모에 민첩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거침없이 덤벼드는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새로운 시대에 문화는 더 이상 방어 요소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다듬고 강화시켜야 할 '공격 요소'라는 사실과 함께,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직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전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 문화를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

모든 조직과 기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엇'과 '어떻게'이다. '무엇'은 각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슨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는 조직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소비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구성원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해당된다. 모든 조직은 인간의 좌뇌와 우뇌처럼 이 두 가지 모드를 적절히 번갈아 가며 활용하고 때로는 한꺼번에 의지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보다는 '무엇'을 시급한 요소로 여기고, 시간과 자원을 그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조직문화란 다른아닌 이 '어떻게'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가리키며, 회사가 사업의 전략과 혁신, 업무 효율성, 소비자 만족도, 재무 처리 방식 등 사업의 굵직한 요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

조직 문화의 중요한 역할이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음에도 기업들이 '무엇'에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은 눈만 뜨면 변화하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만 가는데 이 '무엇'에 해당하는 요소는 즉각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마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듯한 잠깐의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 방식을 지속할 경우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고투를 벌이는 상황만 지속되며, 큰 그림보다 목전에 닥친 일들만 보는 근시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반면 조직 문화를 개편하면 실패하더라도 되돌아올 수 있는 튼튼한 회복력을 갖추고 꾸준히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업체들과 달리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하게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재빨리 인지하고 초점을 그곳에 맞추는 기술, 경쟁에서 수익을 거두고 압도적인 위치에 오르기 위해 보다 대담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성공의 열쇠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해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어떻게'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1. 회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 문화
2. 서로 다른 마음가짐

1부. 성공한 기업: 민첩하고, 중점적으로, 거침없이 이룬 승리

3. 중심에 서다
4. 속도를 중시한 구조
5.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이하 생략 - 10장까지)

2부. 성공한 기업: 새로운 조직문화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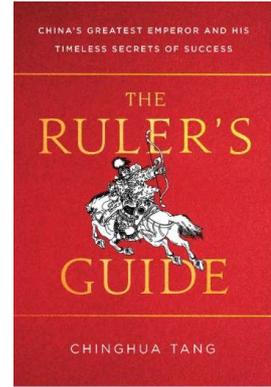
11. 문화의 설계: 조직에 맞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틀
12. 문화의 구상: 첫 단계
13. 리드 그룹: 새로운 문화를 이끌 리더들
14. 배치: 업무 방식의 변화
15. 참여: 구성원의 동참을 이끄는 방법

결론. '어떻게'의 종결, 그리고 '한 번 해보지 뭐'의 시작

<저자 소개>

새라 로버츠(Sara Roberts)는 직접 설립한 컨설팅 업체 '로버츠 골든(Roberts Golden)'의 CEO를 지내면서 12년간 <포춘 500대 기업> 중 여러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저서로는 『Light Their Fire: Using Internal Marketing to Ignite Employee Performance』와 『Wow Your Customers』 등이 있다.

제목 : THE RULER'S GUIDE
가제 : 당 태종의 리더십
저자 : Chinghua Tang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2017년 2월 7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역사/자기계발



- * 300년간 번성한 중국 당나라, 그 평화로웠던 시대의 중심인 당 태종에게 배우는 리더십의 비결
- * 중국인 최초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취득한 작가의 신작
- * 켄블랜차드가 극찬한 인문 경제서

618년부터 907년까지, 30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 당나라 시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중국 역사의 '황금기'로 일컬어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물여덟 살에 당나라를 세운 당 태종이 있다. 아우구스투스, 칭기즈칸, 나폴레옹과 늘 같은 선상에서 거론되며 세계 역사상 최고의 통치자로 꼽히는 당 태종은 몇 가지 면에서는 그 위대한 리더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일구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당 태종은 국정을 운영하고 당나라를 오랫동안 번성시킬 방법을 찾고자 끊임없이 고민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그가 23년의 치세 기간 동안 현명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벌인 치열한 토론과 문답은 『정관정요』라는 책으로도 정리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됐다. 자신의 치세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징용하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눈 그의 통치방식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관정요』는 당 태종 이후의 왕들에게 '리더십의 교과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저자는 영어로는 최초로 당 태종의 이 같은 리더십 원칙과 신하들과의 문답을 이 책으로 정리했다. 겸손함과 열정으로 거대한 영도에 혁신과 발전을 일군 당나라 황제의 통치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리더들에게 값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스물여덟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당 태종은 왕좌에 앉기 전에 이미 각종 분야에서 자문을 구할 현명한 신하들을 한데 모으는 영민함을 보였다. 나라 정책은 물론 국정 운영 방식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이들과의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타고난 군사 전략가로 훈족을 격퇴시키고 실크로드를 다시 개방한 업적이나 혼자서 적군 1,000명의 목숨을 앗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와 함께, 그의 합리적인 통치 방식과 '고대 역사를 거울로 삼아 나라의 흥망성쇠를 배우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득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정치 철학으로 내세운 현명함은 후대 왕들에게는 물론 현대 사회에 들어서도 남다른 리더십의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 회사의 대표부터 한 학급의 교사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누군가를 이끄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주어진 자원을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치자'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사회와 환경, 지역사회, 작은 그룹과 가정에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부딪히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가 거대한 대륙을 이끌었던 당 태종의 고민과 공통분모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대의 현명한 왕이 택한 해결 방식에서 뜻밖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 책에서 소개하는 리더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은 당 태종이 혼자서 떠올린 것이 아닌, 진솔하고 현명한 신하들과의 열띤 토론에서 나온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조언이 아닌 여러 사람의 눈과 견해로 다듬어진 결과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법, 남을 평가하는 방

법, 뛰어난 재능과 도덕적인 요소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법,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 병법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는 법 등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당 태종의 특별한 리더십 원칙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I. 당 태종과 신하들의 대화(군신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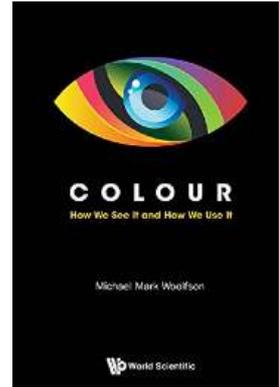
1. 황제가 되는 것
2. 사람을 등용하는 것에 대하여
3. 도덕과 재능
4. 경영
5. 항의
6. 선행
7. 병법
8. 범죄와 처벌
9. 절약
10. 나라의 흥망성쇠
11. 다음 세대의 양육과 교육
12.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II. 당 태종의 놀라운 삶

<저자 소개>

칭화 탕(Chinghua Tang)은 1980년에 BBC 월드서비스(BBC World Service)에서 실시한 영어 대회(English Competition)에서 우승을 거두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이어 중국인 중에서는 최초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다.

제목 : COLOUR
가제 : 색깔의 역사: 우리는 어떻게 보고, 이용하는가?
저자 : Michael Mark Woolfson
출판사: World Scientific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9월 8일
분량 : 230 페이지
장르 : 과학/역사



- * 삶을 풍요롭고 유익하게 해주는 색의 과학적 특징과 사진, 그림, 영화를 통한 색 구현의 역사
- * 광범위한 역사를 아우르며 빛과 색깔이 우리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든 과정을 짚어본 매력적인 교양서

세상이 흑백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얼마나 따분할까! 자연이 만든 색, 그리고 자연을 본 따 인간이 만든 다채로운 색깔은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만들고, 미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보다 유익한 삶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 여러 가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을 볼 수 있고, 색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저자는 너무 익숙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조차 해보지 않는 색깔을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색깔은 어떻게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이 다양한 색을 구분할 수 있을까? 빛과 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색과 빛의 과학적인 특성, 인간의 시각이 작동하는 원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눈의 발달과 진화 과정, 시각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원리를 여러 가지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제시한다. 과학적인 이야기와 함께, 왜 인류는 색을 살린 예술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왜 그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러한 작품을 떠올리고, 알아보고, 그 가치를 매기는 과정은 그 인간 본연의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여기에는 염료와 붓으로 그리는 회화작품부터 빛으로 만들어진 사진, 영화 등 영상이 모두 포괄된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잠깐 주변을 둘러만 봐도 눈에 들어오는 다양한 색깔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궁금증부터 해소한다. 눈의 기본적인 기능과 그 기능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인간의 뇌 기능이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아 시각도 현 상태에서 정확히 그 원리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즉 뇌와 눈 모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물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각 부분에서 정확히 어떤 원리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본다'는 감각이 생겨나는지는 아직 수수께끼에 머물러 있다. 다음으로는 색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욕구를 탐구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이 만든 색을 보면서 살아간다. 색을 직접 만들고 재현하려는 시도는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조상들이 동굴 벽에 남긴 그림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흙과 물, 기름 등 온갖 재료를 동원하여 도자기 등 일상용품에 색을 입히고, 옷에도 색을 입히려고 애쓰는 우리의 성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색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저자는 기술과 색의 결합으로 넘어가서, 사진과 영화, 텔레비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고정된 이미지부터 움직이는 이미지까지 원하는 색을 입히기 위해 노력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업적을 들여다본다. 이어 광고판, 상점의 진열대에 놓인 네온사인과 형광등, 폭죽과 레이저를 동원한 전시와 진열 효과 등 빛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고, 마지막 장에서는 도로 표지판과 병원, 공장, 가정에서 인간의 안전을 지켜

주는 등 색과 빛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식과 그 다양한 유형을 보여준다.

전문가와 과학자들이나 흥미를 가질 법한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배제하고, 광범위한 역사를 아우르며 빛과 색깔이 우리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든 과정을 짚어본 재미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눈

2장. 눈의 진화

3장. 색깔의 과학적 원리

4장. 색의 범위

5장. 시각과 색깔

6장. 색과 환경의 인지

7장. 회화, 회화에 쓰이는 안료

8장. 염료의 발전

9장. 도자기와 유리에 색 입히기

10장. 색이 있는 이미지의 투영

11장. 초기 컬러사진

12장. 컬러 사진

(이하 생략 - 총 1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이클 마크 울프슨(Michael Mark Woolfson)은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행성을 연구해온 과학자로, X선을 이용한 결정분석기술과 생체물리학, 별과 행성의 탄생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옥스포드 지저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맨체스터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요크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다.